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정원과 지수가 카페에서 만난 상황>
정원: 어머, 지수야 안녕? ㉠ 여기는 무슨 일이야?
지수: 응, 안녕? 이따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 이번에 □□
 고등학교하고 연합 체육 대회를 하잖아.
정원: 아! 맞아, 네가 체육부장이지? 작년에는 ㉢ 거기 운동
 장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하겠네?
지수: 맞아. 올해는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하기로 해서 할
 게 많더라. 경기 종목 정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정원: 간식 준비도 우리가 해? ㉣ 그때도 여기서 준비했잖아.
지수: 응, ㉤ 그쪽이 대신 기념품 맡는대.
정원: 그래도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 ㉥ 거기랑 좀 나눠
 말자고 해.
지수: ㉦ 그건 ㉧ 그래. 근데 ㉨ 그건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분담하기가 좀 ㉩ 그러네.

- ① ㉠과 ㉡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② ㉡은 발화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고, ㉢은 발화시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 ③ ㉣과 ㉤은 청자를 포함한 대상을 나타낸다.
- ④ ㉦과 ㉧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킨다.
- ⑤ ㉨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은 상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시된 자료 ㉠~㉣을 분석해 보자.

㉠: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다.
 ㉡: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
 ㉢: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

- ① ㉠의 '시작되자'와 '낮췄다'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
- ② ㉠의 '낮췄다'와 ㉡의 '빼앗겼다'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③ ㉠의 '시작되자'와 ㉡의 '말리는'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④ ㉢의 '친구랑'과 '미술관이랑'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 ⑤ ㉢의 '만나'와 '가'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은 음소 문자이다. 그렇다면 ‘ㄱ’은 소리일까, 문자일까? ‘ㄱ’은 문자이다. 기호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자 자체는 형식(‘ㄱ’ 자체는 형식이다.)이고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내용이다.(‘ㄱ’ 문자 자체로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호가 되지 못한다.) 예컨대 ‘ㄱ’은 [m]의 초성에서 나는 소리인 양순 비음을 나타내는 형식이고, 내용은 양순 비음(ㄱ의 소리는 양순 비음이다.)이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자의적(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중1 ‘언어의 자의성’)이다. ‘ㅏ’로 소리 [a]를 나타내는데 ‘ㅑ’로도 소리 [a]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는 연구개 비음을 ‘ㅓ’으로 나타내는데 비해 15세기 국어에서는 ‘ㅓ’으로 나타낸 것은 이를 보여 준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한글 자모는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ㅍ ㅎ’ 14자, 모음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0자 총 24자이다. ‘자모’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24자 외의 자모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 쓴 것’이다.(ㅄ, ㅚ, ㅞ, ㅟ, ㅢ, ㅤ, ㅥ, ㅦ, ㅧ, ㅨ 등)

24자모는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ㅚ’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 모음([jo])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어울려 쓴 모음자 중에는 단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ㅚ’와 ‘ㅓ’는 각각 ‘ㅏ’와 ‘ㅑ’, ‘ㅓ’와 ‘ㅕ’를 어울려 쓴 것인데, ‘ㅚ’는 단모음([el])을, ‘ㅓ’는 이중 모음([wa])을 나타낸다. ‘ㄱ’ 두 개를 어울려 쓴 ‘ㄲ’도 초성에서 하나의 소리, 즉 된소리 [k']를 나타내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ㅅ’과 ‘ㄱ’을 어울려 쓴 합용 병서 ‘ㅅ’으로 [k']를 나타냈다.(국어사 - ‘ㅅ’계 합용 병서. 어두자음군이라 배웠던 것들. ‘어두자음군’은 현대로 오면서 뒤엎것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으로 통일됨.)

한편 1)어울려 쓴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2)하나의 이중 모음이 어울려 쓴 자모 두 종류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ㅚ’, ‘ㅓ’는 각각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는 어울려 쓴 모음자 ‘ㅚ’가 단모음, 이중 모음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것으로 전자의 예이다. 이에 비해 이중 모음 [we]는 어울려 쓴 모음자 ‘ㅞ’로 나타내는데, ‘ㅚ’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후자의 예이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변할 수 있다. ‘ㅓ’은 내용은 그대로 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이다. 현대 국어와 달리 ‘ㅓ’는 15세기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aj])을 나타냈는데(‘ㅓ’는 중세 시기 ‘어아’로 읽음), 이는 형식(문자)은 그대로이면서 내용(소리)이 변한 예이다. **형식과 내용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

35.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ㅏ’의 ‘ㅏ’는 형식이고, 그 내용은 ‘ㅏ’가 나타내는 소리이다.
- **지문의 내용: 형식은 문자이고, 내용은 소리이다.**
 - ② 현대 국어 ‘콩’의 ‘ㅇ’과 15세기 국어 ‘콩’의 ‘ㅇ’은 그 내용이 같다.
- ‘ㅇ’은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이다.
- ‘콩’이 나온 이유는 24학년도 수능 지문형 문법이 재료가 된 것 같다.
 - ③ 한글 자모 24자 중 자음자에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정답]
- **모음자에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이 있으나(ㅚ, ㅛ, ㅟ, ㅠ) 자음자에는 없다. 그러므로 정답.**
 - ④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24자모의 모음자 3개를 어울려 쓴 것도 있다.
- **지문 속 예시로 ‘ㅞ’(ㅚ+ㅓ+ㅕ)가 있다.**
 - ⑤ ‘ㅓ’는 ‘ㅏ’, ‘ㅑ’를 어울려 쓴 것이고, 두 종류의 소리를 나타낸다.
- ‘ㅚ’, ‘ㅓ’는 각각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 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
ㅓ - [ü], [wi]
ㅚ - [ö], [we]
1. 어울려 쓴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
‘ㅚ’, ‘ㅓ’ 1) 단모음으로 발음(현대 단모음 체계 10 단모음)
2) 이중모음으로도 발음

2. 하나의 이중모음이 어울려 쓴 자모 두 종류와 결합하는 경우
[we] 1) ‘ㅞ’
2) ‘ㅚ’

36.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훈민정음』(해례본)에는 <한글 맞춤법>의 한글 자모 24자 외에 ‘ㅇ, ㅅ, ㅈ, ㅊ’ 4자가 더 있었다.
- 15세기 국어에서 ‘ㅁ, ㅂ, ㅅ’의 합용 병서는 초성에서 두 소리의 연쇄로 발음되는 자음군을 나타냈다.
- 15세기 국어의 ‘ㄷ’은 15세기 국어의 ‘ㅅ’과 같은 조음 위치의 유성 마찰음을 나타냈다.
- 15세기 국어에서는 경구개음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아서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료>

	㉠	㉡	㉢	㉣	㉤
15세기 국어	앗겨(←앗기어)	이때	어버시	꺄득	즐기디
현대 국어	아껴(←어끼어)	입때	어버이	가득	즐기지

-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꺄’는 현대 국어의 ‘꺄’와 형식도 같고 내용도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모음으로 같다.
 - ‘꺄’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ㅣ’의 연쇄인 이중모음으로 같다.
-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ㅁ’은 ‘ㅂ’이 나타내는 소리와 ‘ㅅ’이 나타내는 소리의 연쇄였고, ‘ㅁ’의 ‘ㅅ’은 현대 국어의 ‘ㅅ’과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랐군. [정답]
 - ‘ㅅ’은 지문의 내용(‘ㅅ’ 두 개를 어울려 쓴 ‘ㅅ’도 초성에서 하나의 소리, 즉 된소리 [k]를 나타내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ㅅ’과 ‘ㅅ’을 어울려 쓴 합용 병서 ‘ㅅ’으로 [k]를 나타냈다.)으로 보건데, 형식이 달랐던 건 맞지만 내용은 일치하므로 선지의 해당 부분이 잘못되어 답은 2번.
-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ㄷ’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소멸되었군.
 - ‘ㄷ’을 가리키는 문자(ㄷ)와 소리(내용; 치조 유성 마찰음)가 소멸되어 어버시가 어버이가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는 형식이 소멸되었고 내용은 다른 소리로 변했군.
 - 형식 ‘·’는 소멸되었고, 내용은 변한 경우(‘ㅅ’, ‘ㅅ’ 등)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을 보니, ‘ㅅ’은 ‘꺄’와 마찬가지로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형식은 같고 내용은 다르군.
 - ‘ㅅ’은 중세 국어 당시 치음이었다. 즉, 내용이 다른 게 맞다.

[참고] 중세 국어 시기 한글 자모 28자 (스물 여덟 字號)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어금니소리)	ㄱ	ㅋ	ㅇ (옛 이음)
설음(혀소리)	ㄴ	ㄷ, ㅌ	
순음(입술소리)	ㅁ	ㅂ, ㅃ	
치음(잇소리)	ㅅ	ㅆ, ㅊ	
후음(목구멍소리)	ㅇ	ㅁ(여린 히음), ㅎ	
반설음			ㄹ
반치음			ㅅ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天(양성 모음)	ㅏ	ㅑ ㅓ	ㅕ ㅗ
地(음성 모음)	ㅓ	ㅕ ㅗ	ㅑ ㅓ
人(중성 모음)	ㅣ		

중세 국어 시기 자모의 운용

- 이어쓰기(=연서) [23학년도 수능 37번]
 - (1) 입술소리 아래에 ‘ㅇ’을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
 - 입술소리 ㅂ, ㅃ, ㅁ, ㅅ
 - 입술 가벼운 소리 ㅍ, ㅑ, ㅓ, ㅗ
 : 국어에서는 ‘ㅑ’만 쓰였다. 『동국정운』에서 ‘ㅑ’이 쓰였으며, 나머지 ㅍ, ㅑ, ㅓ, ㅗ는 『사서통해』에서 보였다.
- 나란히쓰기(=병서) [23학년도 수능 37번]
 - (1) 초성이나 중성을 합칠 때에는 가로로 나란히 쓴다는 규정
 - (2) 분류
 - ① 각자 병서: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기
 - ㅅㅅ, ㅃㅃ, ㅁㅁ, ㅑㅑ, ㅓㅓ, ㅗㅗ
 - ② 합용 병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기
 - ㅂㅑ(ㅃㅑ), ㅅㅑ(ㅆㅑ), ㅑㅑ(ㅑㅑ), ㅑㅑ(ㅑㅑ)
- 붙여쓰기 [23학년도 수능 37번]
 - (1) 중성이 초성과 합칠 때에는 초성의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놓인다는 규정
 - (2) 분류
 - ① 하서: 중성 글자는 초성 글자의 아래쪽에 붙여 쓴다.
 - 예) ㅑ, ㅓ, ㅗ, ㅑ, ㅓ
 - ② 우서: 중성 글자는 초성 글자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 예) ㅑ, ㅓ, ㅗ, ㅑ, ㅓ
- 음절 이루기(성음법)
 - (1) 모든 글자, 즉 초성, 중성, 종성은 어울려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규정
 - (2) 유형
 - ① 국어에서는 ‘초+중, 초+중+중’으로 이루어진다.
 - 예) ㅑ, ㅓ
 - ②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는 ‘초+중+중’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예) ㅑㅓ

[참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5~36번 지문형 문법]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예: ㄱ→ㅋ)에 따라 만든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중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중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ㅋ’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ㄱ’과 중성자 아음 이체자 ‘ㅇ’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ㄱ	노로	피(산)	섬	뉘(뱀)		
가획자	ㅋ	뒤(띠)	벌	조히(종이)			
		고티	파	체	부형		
이체자	리(벼)					어름	이(아우)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푯/ㄷ리	물/그력(기러기)	깃	
초출자	논/벼로	밥	누에	브섬
재출자	쇼	남상(거북의 일종)	슈름(우산)	덜

〈중성자 용자례〉

8중성자	독	곰(곰팡이)	반(반딧불이)	간(갯)
	뱀	섬(섬)	갓	벌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름’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로는 ㉠ ‘고티’(>고치)나 ‘덜’(>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 ‘섬’(>섬)이나 ‘쇼’(>소)처럼 단모음화한 유형, ‘ㄷ리’(>다리)나 ‘푯’(>푯)처럼 ‘·’가 변한 유형, ㉢ ‘물’(>물)이나 ‘브섬’(>부엌)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 ‘노로’(>노루)나 ‘벼로’(>벼루)처럼 끝음절에서 ‘ㄱ’>‘ㄴ’ 변화를 겪은 유형(이하, 강화, 유추 관련 내용: 『훈민정음』의 ‘서르’가 ‘서로’가 됨.) 등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는 ㉣ ‘부형’(>부엌)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 ‘갈’(>갈대)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

이 있다.

※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ㅇ’, 아음 이체자는 ‘ㅇ’으로 표기함.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 ②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례 예시 단어의 중성에 쓰인다.
-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 ④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중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중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리 딴’(>별이 진)의 ‘딴’은 ㉠에 해당한다.
- ② ‘셔울 겨샤’(>서울 계셔)의 ‘셔울’은 ㉡에 해당한다.
- ③ ‘플 우희’(>플 위에)의 ‘플’은 ㉢에 해당한다.
- ④ ‘산 거미’(>산 거미)의 ‘거미’는 ㉣에 해당한다.
- ⑤ ‘닥 님’(>닥나무 잎)의 ‘닥’은 ㉤에 해당한다.

37.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건]

-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것.
-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

- ①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세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다.
- ②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잠자리에 드셨다.
- ③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다.
- ④ 유난히 길어진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다.
- ⑤ 저 가게에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 췌다.

- ①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세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다.
 - 편찮-/-(으)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ㄴ(관형사형 전성 어미) 음악 선생님/을 세(수 관형사)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시-/(-)었-/(-)다
 - 관형사는 문장 성분이 그대로 관형어가 됨. '세'
 - '편찮다'는 주어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
 - '모시다'는 '…가 …를 …로 모시다'의 구성으로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
 - 주의) '모시다'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있는 게 아님. '계시다'(객체 높임 특수 어휘), '주무시다'(주체 높임의 어휘) 역시 마찬가지.
- ②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잠자리에 드셨다.
 -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관형사) 장 읽-/(-)으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잠/자리/에 들-/(-)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었-/(-)다
 - '읽다'는 주어+목적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
 - (잠자리에) 들다'는 주어+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
- ③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다.
 - 끊임/없-/(-)는(관형사형 전성 어미)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었-/(-)다.
 -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것이 없음.
 - '끊임없다'는 주어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
 - '(…에) 합격하다'는 주어+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
- ④ 유난히 길어진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다. [정답]
 - 유난/히 길-/(-)어 지-(통사적 피동 표현 '-어 지-'가 형용사에 결합할 경우 상태의 변화를 말함)/-ㄴ(관형사형 전성 어미) 추위/에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었-/(-)다.
 - '온갖'이 관형사로서 관형어가 됨.
 - '길어지다'는 주어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
 - '하다'는 주어+목적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
- ⑤ 저 가게에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 췌다.
 - 저 가게/에서 파-/(-)는(관형사형 전성 어미)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시-/(-)었-/(-)다.
 - '팔다'는 주어+목적어+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3자리 서술어.
 - '맛있다'는 주어를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
 - '다시다'는 주어+목적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
 - '다시다'의 '시'는 어간의 일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정원과 지수가 카페에서 만난 상황>
정원: 어머, 지수가 안녕? ㉠ 여기(카페)는 무슨 일이야?
지수: 응, 안녕? 이따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 이번에 □□
 고등학교하고 연합 체육 대회를 하잖아.
정원: 아! 맞아, 네가 체육부장이지? 작년에는 ㉢ 거기(□□고등
학교) 운동장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하겠
 네?
지수: 맞아. 올해는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하기로 해서 할
 게 많더라. 경기 종목 정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정원: 간식 준비도 우리가 해? ㉣ 그때(작년 연합 체육 대회)도 여기
 서 준비했잖아.
지수: 응, ㉤ 그쪽(□□고등학교)이 대신 기념품 맡는데.
정원: 그래도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 ㉥ 거기(□□고등학교)랑
 좀 나눠 맡자고 해.
지수: ㉦ 그건(간식 준비) ㉧ 그래(훨씬 힘들). 근데 ㉨ 그건(우리 학교가
간식 준비를 하는 것)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분담하기가 좀 ㉩
그러네(안 될 것 같다).

- ① ㉠과 ㉡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카페. ㉡은 □□고등학교 교이므로 오답.
- ② ㉠은 발화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고, ㉡은 발화시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 연합 체육 대회를 하는 '사건시'는 나중의 일이므로 '미래'이기에 동일하지 않다. ㉡은 작년이기 때문에 발화시 이전의 때가 맞다.
- ③ ㉢과 ㉣은 청자를 포함한 대상을 나타낸다.
- 담화 지문의 단골 출제 요소. 담화 맥락상 지수와 정원은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므로 오답.
- ④ ㉤과 ㉥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킨다.
- 간식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내용이므로 [정답]
- ⑤ ㉦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은 상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 지문을 보면, 지수 역시 간식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힘든데 올해도 맡게 되어 분담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분담하기가 좀 그러네'는 '이미 결정되어서 바꾸기 어려울 것 같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원의 제안에 대해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국어의 의존 형태소에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시된 자료 ㉠~㉣을 분석해 보자.

㉠: 발표가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다.
 ㉡: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
 ㉢: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

- ① ㉠의 '시작되자'와 '낮췄다'의 접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
- '시작'은 명사, '낮다'는 형용사이다. 여기에 각각 파생 접미사 '-되-', '-추-'가 결합하여 '시작되다'라는 동사, '낮추다'라는 사동사를 파생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
- ② ㉠의 '낮췄다'와 ㉡의 '빼앗겼다'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빼앗-/-기-/-었-/-다'는 피동의 의미를 더해 준다.
- ③ ㉠의 '시작되자'와 ㉡의 '말리는'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말리는'은 현대 국어 관점에서 '마르다'에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그러나...
- [참고] '말리다'는 '[ㅁ르-+-오-(중세 시기 존재한 사동 접미사)] > 물오다 > 물외다 > 물외다'로 어원이 밝혀져 있다. 현대 국어 관점에서 분석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 EBS 공식 해설은 '-리-'를 제시했다. 이 경우 '말리다'는 '말-/-리-/-다'로 분석되는데 이는 '마르다'와 어간이 다르므로 해당 분석은 재고를 해 봐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 ④ ㉢의 '친구랑'과 '미술관이랑'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 'A는 B와/과'의 구성에서 '와/과'는 부사격 조사이고,
- 'A와/과 B'의 구성에서 '와/과'는 접속 조사임을 응용할 때, '랑'과 '이랑'은 애초에 다른 조사이므로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즉,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 성분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는 격 조사이다. 그러나 'A와 B'의 구성일 경우 'A와'는 부사어가 아니며, 'A와 B'를 통째로 묶어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⑤ ㉢의 '만나'와 '가'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 '만나-/-야'의 '-야'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이고, '가-/-야'의 '-야'는 종결 어미이다.
- 동일 모음 탈락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 같다.